

전 남

족정공천(足正公薦)이면 민신지의(民信之矣)

김은정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 덕목이며, 수신제가의 핵심은 민심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전남지역 19대 총선의 결과는 한마디로 홈그라운드에서의 석연찮은 승리였다. 민주통합당은 11개 선거구에서 총 10개 의석수를 차지하였고, 7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재신임을 받았다. 공천인물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여전했다. 무소속 바람으로 12석 중 9석을 차지했던 18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의석수를 합하여 13석 중 12석을 차지했던 17대 총선과 비교해 보아도 수치상 비슷하거나 더 우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19대 총선은 표면적으로 이전의 선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달랐다.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과 정권교체라는 당위적 명분을 가지고도 전남지역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못했다. 기대와 달리 새로운 인물 등용을 통한 개혁적인 공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은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졌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막판 후보단일화로 표 분산을 막았지만, 여수갑 선거구의 경우 탈당 후보를 비롯한 무소속 난립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는 18대

총선에 비해 지지율이 불과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전남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렇지만 빨간 깃발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통합진보당에 1개 의석을 내주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야권연대의 승리는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이미 야권연대의 승리를 경험했던 순천지역을 포함한 전남지역 모두 후보단일화 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의 브랜드는 관용여권으로 사용된다.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검증된 민주통합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 왔고, 전남지역의 정치적 행보 역시 민주통합당에 대한 꾸준한 지지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당 중앙에서 평가하는 지역민심과 지역에서 당에 기대하는 민심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순천곡성 선거구를 중심으로 지역여론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당에 의한 정치적 리드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치적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것은 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민심이 민주통합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자립 가능성을 이미 시험했기 때문이다.

순천곡성 지역에서의 19대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통적 우세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패했다는 사실은 민주통합당의 인물공천이 지역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 충성도가 높은 전남 지역에 대한 공천 전략을 다시 한 번 스스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며, 집안 내 불만도 읽어내지 못하는 정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무모한 기대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에 대해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1. 복합적 선거 국면

순천곡성 지역의 선거는 전남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복잡한 정치적 요소들과 정치적 경험들이 뒤섞여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선거 구도에서는 정당 지지와 공천인물 지지가 엇갈린 형태로 나타났고, 동시에 치러진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새로운 선거구 획정, 그리고 야권연대의 정치적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선거 변수로 보여 졌다.

먼저 전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도는 69.6%였고, 이보다는 낮지만 순천 67.4%, 곡성 63.6%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아직 존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공천후보 지지 문제로 돌아가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에 비해 무려 15.8%차로 패했다. 이는 선거 전 많은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인물 검증과 인물 심판론에 대한 논의가 후보 선택에 집중되었다.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경우 전남지역 공천이 확정되면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꼴이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순천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연대 역시 실패로 결론 났다. 동시에 치러진 선거로 인해 높아진 표심은 결국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심판의 표출이었다. 후보연대에 성공한 무안, 강진군수 보궐선거와 다르게 유일하게 지역기반이 강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동반 유세 시 민주통합당 후보 당선이라는 공식에 따르지 않고, 역으로 동반 지지가 하락하는 부정적 연대를 낳았을 뿐이다. 이러한 복잡한 선거 구도에 순천과 곡성 선거구의 통합은 총선 전 예상과 달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후보로서는 지지를 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곡성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순천시장

이었던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인물 평가보다는 당대당 차원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았다.

2. 당대당론 대 인물론

어느 지역 선거보다 치열했던 순천곡성 지역의 선거 구도는 당대당 논리 혹은 인물 논리가 핵심 요소였다. 민주통합당 대 통합진보당 그리고 전 순천시장 대 현역 국회의원. 특히 순천시의 선거는 인물론으로 압축되었다. 이 또한 공약 검증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공천에 대한 심판, 인물에 대한 심판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경선과정부터 지역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났고, 대대적인 유세나 기술적 선거 전략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 내 평가가 좋지 못한 공천인물에 대한 신뢰는 민주통합당 브랜드로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것이 결국 총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게 한 결정적 원인이었다.

1) 대표성과 형평성의 결여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심이 최우선시 되는 선거가 될 것임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으로 치러진 국민경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 정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당에서 임의로 정해서 내려 보내는 전략공천과 같은 효과를 보였을 뿐이다.

우선 국민경선방식이 대표성을 갖느냐의 문제부터 부딪혔다. 사전에 모집된 순천곡성의 국민경선인단 1만 5천여 명(순천 8,000여명, 곡성 7,000여명) 가운데 경선 참여율은 41.5%에 불과했다. 23만여 명의 유권자들을 실제 투표에 참여한 6천여 명이 대표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인구대비 경선인단 수를 비교했을 때 순천과

곡성의 9:1에 달하는 인구편차를 비슷한 수준의 선거인단 규모가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의 왜곡이었다. 또한 지역단위선거에서 모바일 경선방식은 고른 여론 반영이 더욱 어렵다. 우세한 조직력을 가진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천곡성 선거구의 국민경선 당시 현장투표에서는 지역적 차이만 보였던 반면, 모바일 투표에서는 동원 규모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은 곡성 지역의 경우 명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여론 파악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동원이나 조작 가능성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방에서는 더욱 높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천의 형평성에 있었다. 순천시장 후보 공천 신청자 10명 중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은, 박광호 후보를 경선불복 전력을 이유로 공천심사대상에서 탈락 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세력다툼에 밀린 노관규 역시 공천불만을 이유로 경선불참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경선과정이 지역 여론에까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통합당 공천후보에 대한 불신에 한 몫 하게 되었다.

2) 노관규 대 반노관규

인물론에 대한 심판은 민주통합당 지지층의 이탈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인물의 오점은 전통적인 지지자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다. 거대정당의 조직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대당의 대결이 아닌 노관규 대 반노관규의 대결 양상으로 선거구도가 형성되었다. 반 노관규 정서가 표심에 강하게 표출되었다. 민주통합당 지지세력의 이탈뿐만 아니라 부동층이 대부분 통합진보당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18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의 당대당 대결이 80%에 가까운 지지

율의 일당독식으로 끝났던 반면, 이번 총선 역시 당대당 구도지만 거꾸로 통합진보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4년 만에 정치지형이 급변했고,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하락했으며, 공천후보의 치명적 실정이 지역 유권자들의 인내 임계치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2010년 6.2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순천시 지역 유권자만 고려했을 때 노관규 후보 지지자 중 천3백여 표 정도의 지지자 이탈이 있었다. 소속 정당 없이 정책 이슈화 성공으로 선출된 후보가 거대정당의 이름을 걸고도 크게 패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심판여론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중도사퇴 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데에 집중되었다. 노관규 후보는 6.2지방선거에서 중도사퇴가 없음을 약속하면서 순천시 지역 최대 관심사인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공약과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민주통합당 조보훈 후보를 누르고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한 이유로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선 것이다. 출마 명분은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상실했고, 지역민을 무시한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평가와 함께 총선은 그에 대한 심판론이 주를 이루었다.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시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도중하차 했던 피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민으로서 지역민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다. “순천은 정치 시험장이 아니다”라는 노관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부동산을 확실하게 돌아서게 만들었다. 게다가, 2007년 단체행동을 이유로 노조임원 7명을 파면, 해임 조치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노조탄압의 기록을 남겼으며, 잦은 인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빈번한 충돌 등 그의 일방적, 독재적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반 노관규 표심은 그대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순천시의 선거는 노관규 대 반노

관규 논리로 점철되는 구도였다.

3. 인물공천 실패의 결과

인물공천 실패의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한 민심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민심의 변화는 분명했다. 작게는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동반 탈락으로 끝났고, 크게는 민주통합당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지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1) 민주통합당의 현상유지와 통합진보당의 약진

전남지역 총선에서 승리자는 통합진보당이었다. 11개 선거구 중 6 곳에 후보를 냈고, 평균 정당 지지율이 14.8%에 이른다. 이는 17대 총선에서 4개 선거구, 지지율 11.2%를, 18대 총선에서 5개 선거구, 지지율 10.1%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출마 후보의 수나 지지율 면에서 모두 눈에 띄는 정도로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순천과 곡성 지역의 지지율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민주노동당 열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는 전국 수준의 지지율에 머물렀지만, 오히려 18대부터는 전국 대비 2배 수준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였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전남 평균 지지율도 5% 가까이 뛰어넘는 지지를 받았다. 수치상의 변화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의 지지기반의 상승이 상당한 정도임을 예상하게 한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현상유지 상태이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제1야당의 이점에 불과했다. 또한, 10년 남짓 조직기반을 다져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와 일당독점에 대한 지역적 거부감, 그리고 공천 자체에 대한 불만여론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으로 흡수되었다.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왔지만 발전이 없는 민주통합당과 무섭게 성장해가는

통합진보당 간에 지지 이동은 앞으로의 전남지역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지층의 이탈

무엇보다 당원의 감소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5만 명 정도의 당원 규모로 추정하는 것과 비교해 현재 2만7천 명 정도의 당원 규모는 잠음이 심했던 이번 공천 및 경선 과정에서 상당부분 이탈이 있었음을 예상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경우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기준으로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현재 순천지역 1,100여명, 곡성지역 300여명 정도로 민주노동당 당시 규모에 비해 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 텃밭인 전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 당원 감소세와 통합진보당 당원 증가세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층의 결집

선거 판세는 부동층의 표심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부동층이 투표로 만들어낸 결과는 예상보다 우세한 표차의 통합진보당 후보의 승리였다. 민주통합당은 겨우 일부 전통적 지지자들의 표심만 붙잡았을 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곡성지역과 달리 순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자 주변 도시들과 연계가 강한 지역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다. 20~30대 인구 대 6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6.3% 대 16.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인구형태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많이 포함된 전통적 지지자들에 비해 민주통합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나 충성도가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순천시의 부동층 지역으로 평가되는 덕연동, 왕조1동, 왕조2동의 신도심은 총

인구의 43.5%, 즉 절반에 가까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 곳 유권자가 8만에 가깝다. 이 지역은 오히려 20~30대 인구가 60대 이상 인구의 5배 이상 많은 서울과 비슷한 인구 구성을 보인다. 김선동 후보의 지지율 역시 총 지지율 56.4%을 상회하는 59~63% 수준이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주노동당 출신의 3명의 시의원들을 배출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한 지지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민주통합당 지지세력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결집시킨 정당은 꾸준히 경쟁력을 보임으로써 민심을 돌봐온 통합진보당이었고, 이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을 대신해 지역일꾼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시켜줬다.

4. 시사점

순천곡성 지역의 19대 총선 결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가능성과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지방세력과 적당히 타협하여 공천하는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역할 그 이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희석되어 나타났다. 인물공천에서 철저히 실패함으로써 부동산을 이끌어오지 못했으며 전통적 지지자들마저 이탈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공천인물에 대한 검증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지역여론의 반영에 있다.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 임기 중 사퇴하는 후보에 대해 보궐선거 비용이나 행정적 공백 등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당의 명의를 이용한 실리 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지만 민심을 돌보지 않는 인물을 공천할 경우, 그 역할을 다른 정당이 대신할 수 있다는 데에 지역여론이

공감하고 그 가능성을 투표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무원칙하고 감동 없는 공천이 계속된다면 무능함의 아이콘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경제(足食), 군사(足兵), 백성들의 신뢰(民信之)인데, 그 중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들의 신뢰이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음을 천명한 구절이다. 선량으로 뽑힌 대표자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정당이 그러한 일꾼들을 지역으로 파견할 때 훨씬 더 큰 유권자들의 표심이 모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역여론을 이해하는 것이며, 멀리 보면 이는 또 다른 정당 일꾼에 대한 투자이며, 대선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